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 '나만 힘들다'는 생각부터 버리기

내 문제에 집착하면

"'내 힘들다'를 반대로 읽어보세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하시면서요. 그 기발한 발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니다.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그냥 아무데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디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야지요"하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순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 가는 길이었지만 무조건 취소해 버렸습니...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자신의 고민...누구나 겪는 일
이웃 위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면 '행복'

대로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제 문제만 이해 못해요. 그러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아시면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아무리 괜찮으니 편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그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이해 못할 문제라고요? 제가 오래동안 사형수들을 만나고 있는 것 모르셨군요. 또 강력법, 무기수들과 마음을 터놓다 보니, 피눈물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고 세상에 그들보다 더한 사연은 아직 못보았는데요.

법우님이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전 더 이상 놀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세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잠기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재소자 법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불법에 귀의한 후 그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며 어떻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살행을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날 우리는 다섯 시간 이상을 이야기하며 함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청년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불 만들기

'사계절 없는 내 마음의 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와서 진정한 불이 온 것입니다. 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은 여전히 얼어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니 짐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불하기 전까지 겪는 고(苦)의 종류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성지순례의 꿈

김경희 서울 도선사 신도

저에게는 오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여 제 곁을 떠나고 직장을 퇴직 후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산재된 명찰을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그렇지만 직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마역할까지 바쁜 생활에 쫓겨 살다보니 생각만 간절할 뿐 실천하기란 여간 힘든 꿈이 아닐 수 없었지요.

오랜 나의 염원에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심인지 도선사에서 108산순례의 대장정을 떠난다고 하신 겁니다. 이 순례행사 소식을 듣고 저처럼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불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 같아 설레고 뜨거운 감동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꿈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사찰 통도사를 순례하는 날입니다. 입제식 하는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108산사 순례기도법회를 무사히 모두 마치고 회향하는 날까지 삼재팔난 만나지 않고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우리지역 차량은 망우역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새벽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소풍전날 아이의 심정이 되어 잠을 설쳐도 졸리지 않습니다. 새벽을 열고 서서히 어둠을 밝히는 여명 속으로 고속도로위의 자유한 인내가 순례단을 반겨줍니다. 그 모습이 미명 속에 살아가는 중생의 삶 같기도 하고, 안수정 등을 잇게 하는 무릉도원처럼 고요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순례 후 귀향길에는 이 인내가 모두 겹쳐 있었지요.

고운 옷 갈아입고 가을을 알려주는 산자락과 맑고 푸른 하늘이 맞닿은 곳에 송구름이 몽실거리고 부드러운 아침햇살이 순례차량 60대 장정의 길에 부처님의 자비처럼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차량 속에는 불법에 포박코박 조는 병아리마냥 노보살님들이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있고, 짧은 보살님들은 차량 밖을 묵묵히 쳐다보며 마음속의 염원을 읊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주는 스님의 독경과 목탁소리가 청정하게 가슴을 파고 듭니다. 오늘은 음력 8월 26일 우연의 일치인지 제 딸 수련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생일상은 차려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 대신 부처님께서 우뚝바라한 이름을 팔에게 내려주셨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존경 받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자식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수천안의 자비와 지혜의 가피를 주시옵소서.'

순례차량이 평사휴게소를 지나 통도사에 가까워오니 차안이 좁고 침묵에서 깨어난 보살님들의 말소리로 웅성거립니다.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고 즐거워하는 참새들의 함창 같습니다. 나는 허수아비가 되어 듣고 웃을 지었습니다. 중생의 각박한 삶 속에서 자주 느낄 수 없는 <반아심경>의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순례차량이 60대라는 말을 듣고 그 대단한 불심에 너무 놀랐는데 그 많은 차량에서 내린 순례단의 행렬은 입에서 함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녹야원의 불제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넓은 장사를 펼쳐서며 그 많은 순례단을 일일이 챙기시는 주지 스님의 모습이 녹야원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처럼 성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구도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경건함을 느끼며 스님의 인솔하에 불보살행 통도사에 도착하니 그곳에 주석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여러 스님과 신도들이



그림: 문병성

'108사찰 순례단' 동참 통도사 찾아 살의 방향 잃지 않길 지극히 염원

이런 길을 달려온 순례단을 너무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불법은 이렇듯 나와 나 분별을 만들지 않고 하나로 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불법처럼 국권이 이루어질 때 국민인민의 태평성대가 될 수 있다는 도선사의 호국도량심이 상기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5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대설법전에서 통도사 주지스님의 환영법회와 108참회기도를 마치고 낙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도들이 많은 까닭에 낙관은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 사찰 곳곳을 다니며 참배했습니다. 열반하신 대덕고승의 가르침이 곳곳에 함겨처럼 배어있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국보까지 볼 수 있는 108산사순례의 불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기쁨을 입은 듯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가 봉안된 금강계단을 올라서면서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있는데 경내 낙관식 행렬이 갑자기 박수와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하늘을 보니 흐렸던 하늘사이로 나타난 태양이 방광을 하고 있었습니다.(끝)

신 행 계 니 판

인천 영산정사 강좌 개설
인천 영산정사가 불교인문반, 천수경반, 불교재민화반, 국악가요반 등의 강좌를 개설해 3월 15일 개강한다. 오전 11시에 첫 강의를 시작하는 영산정사의 강좌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32) 872-5071

백양사 기초교리강좌 개설
장성 백양사가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반 1기생을 모집한다. 3월 16일-7월 20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초교리반 강의에서는 불교기초교리를 비롯해 초법심자를

위한 불교예절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100명 선착순 모집. (061) 392-7502

부산 해원정사 <금강경> 강의
부산 해원정사가 매주 화요일 <금강경> 강좌를 진행한다. 3월~7월 31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해원정사 교무 진명 스님이 법사로 나서다. 수강료 5만원. (051) 866-7771

제20기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3월 27일-5월 18일 매주 화·금요일 제20기 불교귀농학교

를 개최한다. 서울 인드라마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귀농학교에서는 도법 스님이 귀농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실습 등을 병행해 귀농을 돕는다. (02) 576-1886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개강
어린이 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제2기 강좌를 개강한다.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1년 동안 매주 수·목요일 강의가 진행된다. 스님 어린이법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02) 739-49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범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안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범당용(공단용),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벚꽃이 아름다운 절, 가족과 함께 하는 절

합천 청강사 벚꽃 산사 음악회

합천 허굴산 자락의 청정도량 청강사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즈음에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의 선율과 함께 벚꽃의 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청강사 주지 해 광장

◆ 일 시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청강사 경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산 67 ☎ 055)932-5706)
◆ 후 원 : 대병면 유관기관 및 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합천댐 관리단 · KT합천지점
◆ 출연진 : 피아노 연주 - 권상무 교수 · 대금 - 이승준 · 메조소프라노 - 김정미 · 가수 안치환 · 신명퍼포먼스 - 타오

※ 저녁산사는 기온이 낮습니다. 따뜻한 복장 준비 하세요!

권상무 교수 이승준 김정미 안치환 타오